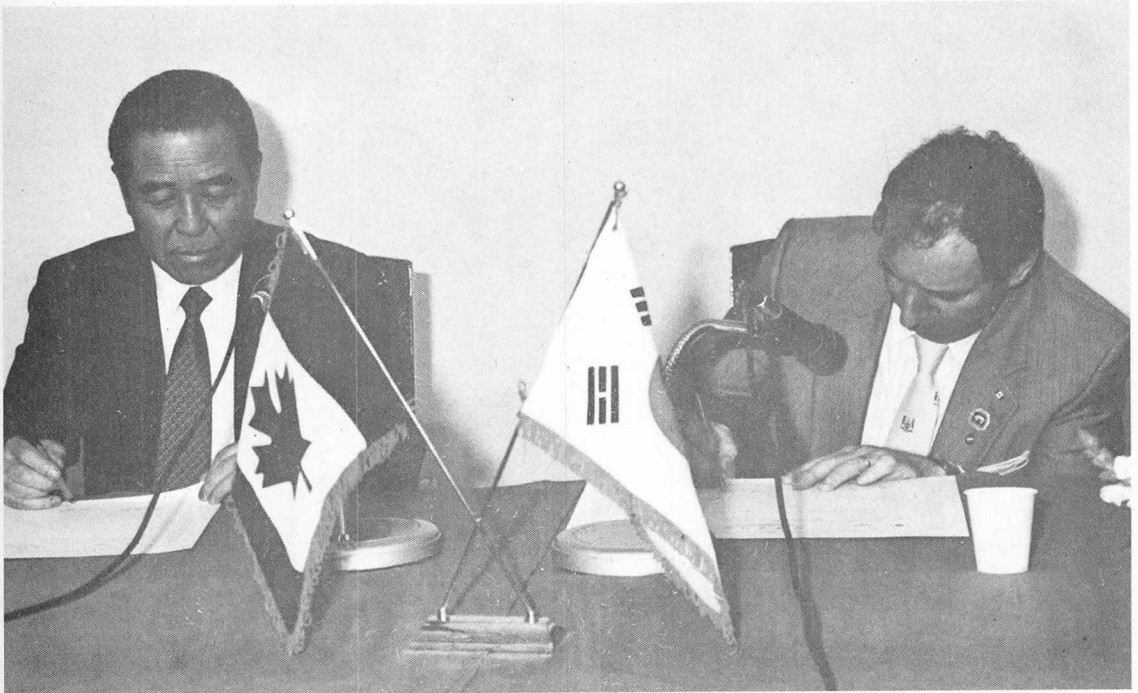


본회, 캐나다 온타리오주 양돈협회와 자매결연 체결



▲ 본회 전동용 회장과 Donald Dietrich 온타리오주 양돈협회장이 자매결연장에 서명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3월 16일 오후 3시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양돈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전동용 회장, 이인혁·정화진 부회장, 한백용 전무이사, 류근홍·최선광·이명복 이사, 김원호 인천지부장·엄원섭 광주지부장·이성우 논산지부장·성정표 울산 울주지부장·황금영 전 순천승주지부장 등이 참석했고, 캐나다 측에서는 잭 리델(Jack Riddell) 온타리오주 농무장관, 도날드 디트리치(Donald Dietrich) 온타리오주 양돈협회장, 팀 암스트롱(Tim Armstrong) 재일 태평양지역 상공수석대표, 도노프리오(D'onofrio) 온타리오주 농무장관 정책고문, 헨리 파울스(Henry Pauls) 온타

리오주 농무부 국제차장, 짐 도날드슨(Jim Donaldson) 캐나다 중돈수출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양돈협회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양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양돈기술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동용 회장은 또 「오는 6월에는 우리나라 양돈협회 회원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양돈협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날드 디트리치(Donald Dietrich) 온

국·캐나다양돈협회

1988년 3월 16

사단법인대양돈



▲ 선물을 전달하는 양 협회장

타리오주 양돈협회장은 「오늘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상호 협력관계가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3월 15일 2일간의 일정으로 내한한 잭 리델(Jack Riddell) 온타리오주 농무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신의 방한중에 양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제,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국이 종돈 등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타 산업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잭 리델 농무장관은 「대한양돈협회에서 온타리오주 방문을 계획한 것을 환영한다」며, 「방문기간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전동용 회장과 Donald Dietrich 온타리오주 양돈협회장, Jack Riddell 온타리오주 농무장관이 자매결연장에 서명했다.

서명후 전동용 회장은 Jack Riddell 농무장관 일행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했으며, Donald Dietrich 회장은 전동용 회장에게 돼지모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양 단체는 자매결연 명칭을 「자매양돈협회」로 결정했다.

이번에 양 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목적은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Jack Riddell 온타리오주 농무장관

양단체가 양돈사양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경영 및 종돈교역을 통해 양돈산업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

양 단체는 향후 ▷종돈의 경제형질을 증진키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연수생의 교환 및 교육 ▷종돈수출입에 관한 협력 ▷기타 양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서로 협력키로 했다.

자매결연식이 끝난후 Jack Riddell 농무장관은 본지를 비롯한 축산신보, 농수축산신보, 농민신문, 농축수산유통정보, 산업경제신문, 월간 양돈연구, 월간 종합축산 등 축산 전문지와 잡지사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양돈산업 현황과 종돈개량방법, 시장 개방 문제, 양단체간의 협력문제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Jack Riddell 농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양돈 관계자 또는 양돈농가가 캐나다 연수교육을 원하면 적극 추천해 주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양측 참석자들은 다과를 들며 환담을 나누었다.

Jack Riddell 농무장관 일행은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위크」 행사에 참석한후 3월 16일 귀국했다. *